사르트르의 사상과 문학

3 주(2010.9.27):

『구토』를 통해서 본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I. 시작하면서

* 주제: 신의 부재를 가정한 세계에서 구원의 가능성?
* 구원(salut) 문제 :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 사르트르: 『구토 *La Nausée*』 (1938)에서 문학(또는 예술)을 통한 구원 가능성 모색;
* 1964 년에 출간된 『말 *Les Mots*』에서는 문학을 통한 가능성의 추구: 사르트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신경증(névrose)'의 소산이었다고 자가 진단;
* 문학의 종교성(religiosité);

II. 문학을 통한 자기 구원

II.1. 구원의 의미

1) 종교적 의미 :

*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 신앙생활(살아 있는 동안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 -> 죽음 -> 영생(Cf. 천당); 절대적 영생;

2) 신의 부재를 가정한 경우의 구원?

* 사르트르의 생각 : 글쓰기 행위 -> 작품 -> 작가의 영광(살아 있는 동안의 영광) -> 죽음 -> 사후의 영광(=이름을 남기는 것);
* 글쓰기의 동기 : 모든 작가에게 해당되는 글쓰기의 동기 : "본질적(essentiel)이라고 느끼는 것"

> "저마다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은 도피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정복(征服)의 수단이다. 그러나 도피한다면야 은둔 생활로, 광기(狂氣)로, 죽음으로 도피할 수도 있고, 또 정복은 무기로도 할 수 있다. <u>그런데 왜 하필이면 꼭 글을 쓰겠다는 것이며, 글을 통해서 도피와 정복을 하겠다는 것인가?</u> 그것은 작가들의 여러 목표의 배후에는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어떤 더욱 깊고 더욱 직접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려고 한다."(『문학이란 무엇인가』, p. 57)

* 사르트르의 답

> "<u>예술적 창조의 주요 동기의 하나는 분명히 세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본질적이라고 느끼려는 욕망이다.</u> 내가 드러낸 들이나 바다의 이 모습을, 이 얼굴의 표정을 나는 화폭에 옮기면서 또는 글로 옮기면서 고정(固定)시킨다. 나는 그 모습들을 긴밀히 관련시키고 질서가 없던 곳에 질서를 만들고 사물의 다양성에 정신의 통일성을 박아 넣는다. <u>그러면 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나의 창조물에 대해서 스스로 본질적이라고 느낀다</u>."(『문』, p. 59)

* 그렇다면 '본질적'이라고 느끼는 것의 의미는?

II.2. '본질적'인 것의 의미

1) 창작의 경우

* 그 결과물인 작품과 관련하여 그것의 출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곧 조물주(데미우르고스; démiurge)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것; 잉여존재의 정당화;

* 존재의 우연성 및 잉여성 : 『구토』의 주요 테마 가운데 하나;

> "본질적인 것, 그것은 우연성이다. 원래 존재는 필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존재란 단순히 거기에 있다는 것뿐이다.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서 만나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연역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 다만 그들은 필연적이며 지기원인이 됨직한 것을 발명함으로써 이 우연성을 극복하려고 해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필연적 존재도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우연성은 가장(假裝)이나 지워버릴 수 있는 외관이 아니라 절대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무상인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이다. 이 공원, 이 도시, 그리고 나 자신도 무상이다."(『구토』, p. 178)

2) 우연성과 잉여성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인간의 목표

*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 절대 필요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 => 정당화(justification) => 존재근거의 확보; 존재이유의 확보;

* 작품을 매개로 '대자-즉자(pour-soi-en-soi)'의 결합, 즉 자기의 존재이유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자기원인자(Ens Causa Sui)인 신(神)의 존재방식에 이르는 것;

* 인간은 수많은 행위(=실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근거와 존재이유의 추구;

* 사르트르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함;

3) 작가 -> 글쓰기 행위 -> 작품 : 이 과정에서 이 세계에 작품이 존재하게끔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작품의 입장에서 보면 필수불가결한 존재; 작품에 대해 본질적이라고 느끼는 존재;

4) 특히 작품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내적 질서를 부여하는 자;

* 사르트르가 '우연성'이라는 개념을 발견한 계기 :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 영화의 세계 -> 모든 요소들이 필연성에 의해 짜여진 세계;

* 영화관 밖의 세계 : 우연성의 세계;

* 『구토』: 주인공 로캉탱(Roquentin)의 경우:

- 재즈곡 '머지않은 어느 날(Some of these days)'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감; 내적 질서; 단단함; 필연성; 다른 시간의 지배;

> "휴식도 모르는 채, 거역할 수 없는 질서가 그 음들을 태어나게 했다가 사라지게 한다. (.....) 또 다른 행복이 있다. 밖에는 강철로 된 허리띠와도 같은 음악의 짧은 지속이 있어, 이따금 우리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시간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 날카롭고 뾰쪽한 작은 끝으로 시간을 찢어 놓는다. 또 다른 시간이 있다. (.....) 그 어떤 것도 이 강철로 된 리본을 깨물지 못한다. (.....) 이 음악의 필연성은 그만큼 강하다. 세상이 주저 앉아버린 이 시간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음악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 음악은 자신의

질서에 따라 스스로 중단할 것이다. (.....)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구토'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구토』, pp. 43-45)

* 예술의 세계는 구토의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세계;
* 『구토』에서 구토의 의미 : 도구성과 유용성에 함몰되었던 사물들의 인간에 대한 반란; 사물들의 나상(裸像)을 보게 된 인간 의식의 변화; 인간과 사물 사이의 낯선 거리감;

> "물체들, 그것들이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것들은 유용한 것이며, 오직 그뿐이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나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그것들이 살아 있는 짐승들이기라도 한 듯이 나는 그 물체들과 접촉하는 것이 두렵다."(『구토』, p. 30)

>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거기에 있었고, 마치 대낮처럼 분명해져 있었다. 존재가 갑자기 베일을 벗은 것이다. 존재는 추상적 범주로서의 비공격적인 태도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사물의 반죽 그 자체이며, 나무의 뿌리는 존재 속에 반죽되었다. 아니 오히려 뿌리며, 공원의 철책이며, 의자며, 잔디밭의 듬성듬성한 잔디며,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사물의 다양성, 그 개체성은 하나의 외관, 하나의 칠에 불과했다. 그 칠은 녹아 벗겨졌고, 그래서 물렁물렁하고 무질서한 거대한 덩어리만 남았다. 벌거벗은, 무시무시한 그 음란한 벌거벗음만이."(『구토』, p. 174)

* 요컨대 인간이 자기와 더불어 주위에 있는 사물존재들이 우연성, 무상성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지각; 그런 지각에서 연유하는 불안과 공포의 감정;
* 구토로부터 벗어나는 것 : 존재의 안정감; 행복;

II.3. 가짜 구원

1) 『구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부르주아 시민들 =>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자들 => 비진정한 삶의 태도;
2) 역사적 인물 롤르봉(Rollebon) 후작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결과가 변할 수 있음;
3) 안니 : '완벽한 순간(moment parfait)' : 절대자가 자기에게 부여한 '본질'에 합치하는 순간; 그런 순간은 없음;
4) 독학자 : 도서관의 모든 책을 알파벳 순서로 읽음 : 지식의 한계;

II.4. 예술을 통한 진짜 구원

* 로캉탱의 체험 : 구토를 한창 체험할 때도 재즈(음악)를 들으면 행복;
* 그 비밀을 알게 됨 : 단단한 강철과도 같은 내적 질서;
* 그리고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과 그 노래를 부른 흑인가수를 생각하게 됨; "존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

> "그녀가 노래한다. 바로 여기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다. 유태인과 흑인 여자.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아마 실존 속에 빠져 어쩌면 자신들이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이렇듯 다정하게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안니조차도. 그들은 나에게 어딘지 모르게 죽은 사람처럼,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보인다. 그들은 존재한다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되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된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나를 뒤흔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기대조차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구토』, p. 235)

* 이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고자 결심;

> "한 권의 책. 한 권의 소설. 그 소설을 읽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앙트완느 로캉탱이다. 그는 카페에서 얼쩡거리던 붉은 머리의 사나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내가 이 흑인 여자의 삶에 대해 생각하듯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소중하고 거의 전설 같은 어떤 것처럼. 한 권의 책."(『구토』, p. 236)

II.5. 예술을 통한 구원의 조건

* 조건 : 1) 작가 - 작품 - 창작행위; 2) 독자의 존재;
*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해야만 함;
* 문학을 통한 구원은 상대적이고 제한적;
* 문학은 종교적 구원의 '대용물';

III. 마치면서

* 독자의 역할; * 독자를 위한 작가의 노력은?; * '참여문학론(engagement littéraire)' 등장;

* 참고문헌

사르트르, 『존재와 무』, 손우성 역, 삼성출판사, 세계사상전집 39-40, 1982.)

----,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명환 역, 민음사, 2002.

----, 『구토』 외, 김희영 역, 주우, 주우세계문학 48, 1982.

김치수 · 김현 편, 『사르트르의 문학적 세계』, 문학과지성사, 현대의 문학이론 14, 1991.

정명환, 『문학을 찾아서』, 민음사, 1994.

한국사르트르학회편, 『사르트르와 20 세기』, 문학과지성사, 현대의 지성 105, 1999.